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 국채 CDS 거래량 증가와 의미

- 미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의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국채의 디폴트를 보증하는 CDS 거래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국제 CDS 거래 데이터를 집계하는 청산예탁결제원(DTCC)은 5월 셋째주 미 국채 CDS 거래 규모가 전주대비 13억 달러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120억 달러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임.
 - 미 국채 CDS 거래가 증가한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 정부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.
 -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5월 16일 법정한도인 14조 3천억 달러에 도달했으며, 오는 8월 초까지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 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게 됨.

- 그러나 미 국채 CDS 거래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이며 CDS 스프레드 상승이 거래량이 적은 1년물에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이번 CDS 거래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제기됨.
 - 미 국채 CDS 거래량은 그리스의 780억 달러, 이탈리아의 2,840억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며, 9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.
 - CDS 거래 증가로 1년 만기 CDS 스프레드가 5월 20일 현재 22bp 상승하면서 50bp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1년 만기 CDS 거래량이 적기 때문이며, 주로 거래되고 있는 5년 만기 CDS 스프레드는 상승하지 않았음.
 - 또한 5월 26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.05%까지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국채시장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.

(Financial Times 등, 5/26)